



3 중국 'AI Plus'가 촉발한 글로벌 자동차 질서 재편

→ 중국 자동차 산업의 AI 전환, 'AI Plus' 5개년 계획으로 가속

- 中 'AI Plus' 5개년 계획, 자동차를 자국 기술 자립화의 핵심 전장으로 지정
 - '26년 초 발표된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제조·의료·모빌리티 등 전 산업에 AI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'AI Plus' 국가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며, 자동차 산업을 핵심 실행 영역으로 설정
 - 차세대 전기차를 단순 네트워크 연결 차량에서 자국 칩·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'자가 추론 기계'로 전환을 핵심 목표로,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환경 속에서 기술 자립과 AI 전환을 동시 추구
 - 자동차 산업을 AI 기술의 대규모 적용 실험장이자 자국 반도체·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수요 기반으로 활용, 기술 자립과 산업 패권이라는 두 목표를 단일 분야에서 실현하는 복합 전략 구조로 설계
- 오토차이나 2026, 가격 경쟁에서 AI 기술 경쟁으로 전환의 현장
 - '26년 4월 개최된 오토차이나 2026에서 AI 에이전트·자율주행·초고속 충전 기술 경쟁이 전시장을 장악하며, 中 자동차 산업의 경쟁 축이 가격에서 AI 기술력으로 이동했음을 확인
 - 특히 공급 과잉으로 이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AI 탑재·프리미엄화가 기업 생존의 출구로 부상, 민간 선택과 AI Plus 국가 전략이 맞물리며 산업 전환 속도를 높이는 구조로 작용
 - 국제자동차생산자협회(OICA) 사무총장은 이번 흐름을 "전환이 아닌 혁명"으로 규정하며, 중국 AI 차량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고 평가

→ 오토차이나 2026으로 본 中 자동차 산업의 3대 변화

(1) AI 에이전트 탑재 차량의 등장,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는 기계로 진화

- 명령 수행에서 맥락 이해로, 차량 AI의 질적 도약
 - 차량 AI가 단순 음성 명령 인식을 넘어 운전자의 의도를 문맥으로 파악하고 복합 태스크를 자율 실행하는 에이전트 수준으로 진화, 이동수단으로서 차량의 역할 자체가 재정의되는 전환점에 도달

- 샤오핑이 공개한 VLA 2.0은 업계 최초로 LLM을 주행 시스템에 통합, 운전자의 지도 좌표 입력 없이 자연어 명령만으로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주차 경로를 스스로 판단해 실행
- 샤오미 HyperOS는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감지해 스트레스 상태를 파악하고 조명·음악을 자동 조절 기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식당 예약·커피 주문·메모 정리 등 복합 태스크를 자율 처리
- 이처럼 중국 업체들이 구현하는 AI는 업무 효율화 중심의 기업용 AI와 달리, 운전·생활·감정까지 아우르는 일상 밀착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것이 글로벌 경쟁사와의 핵심 차별점으로 부각
- 자동차·IT·로보틱스 경계 해체, ‘피지컬 AI’ 생태계로의 통합
 - 이번 모터쇼의 또 다른 특징은 차량 AI가 주행 영역을 넘어 로보틱스·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되는 흐름으로, ‘피지컬 AI’ 개념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핵심 화두로 동시에 부상
 - 샤오핑·지리차 등은 부스에 자사 개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함께 전시, 로봇 개발 역량이 차량 AI와 같은 기술 기반 위에 구축됨을 시사하며 AI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정체성 전환을 공식화
 - 화웨이는 통신 인프라 역량을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스마트 주행 인프라 투자를 선언, 자동차 산업 내 AI 컴퓨팅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선점
 - 자동차 기업과 기술 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평가처럼, 오토차이나 2026은 자동차가 AI 플랫폼 경쟁의 새로운 전장임을 산업계 전반이 공인한 현장으로 기록
- (2)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경쟁, 엔비디아 의존 탈피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
 - 완성차 업체들의 자체 칩 설계, 공급망 자립과 원가 절감의 동시 추구
 - BYD·샤오핑·리오토·지리·니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자체 차량용 칩 개발에 착수, 엔비디아 의존 탈피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반도체 내재화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
 - NIO는 칩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, 자사 차량 탑재를 넘어 전 산업에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의 확장을 공식화하며 중국 자동차용 반도체 생태계의 자생적 확장 가능성을 시사
 - 미국 수출 통제 환경에서 중국의 자체 칩 설계는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기술 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중국 자동차 업계 전반에 빠르게 자리잡는 양상



- 이 흐름은 개별 기업의 전략적 선택인 동시에 AI Plus 국가 전략의 반도체 자립화 목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,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계 실행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는 구조적 특성을 내포
- 중국 팹리스 생태계의 차량 반도체 진입 가속
 -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콕핏과 주행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 처리하는 신형 프로세서 'Starry 6'를 출시, 12개 화면을 동시 처리하는 수준의 통합 컴퓨팅 성능을 확보
 - 콕핏·주행 통합 칩 시장은 그동안 미국의 퀄컴이 사실상 독점해 온 영역으로, Starry 6의 등장은 미국산 칩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공급망 재편이 부품 단위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
 - 완성차 업체의 자체 칩 개발과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전문 칩 업체의 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며, 중국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가 수직통합형·협력형 두 축으로 분화하는 구조를 형성

(3) 로보틱스·eVTOL로 확장되는 모빌리티 생태계

- 자동차 기업, 로보틱스·로보택시로 사업 영역 확장 가시화
 -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 범위가 차량 주행을 넘어 로봇의 자율 동작과 무인 이동 서비스로 동시에 확장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, 차량 AI가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공통 기반으로 기능하기 시작
 - 샤오핑은 휴머노이드 로봇 '아이언'을 동시 전시, 자사 생산라인 투입 검토 대상으로 공개 언급하며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피지컬 AI의 산업 적용 가시화
 - 지리차는 중국 최초 로보택시 전용 프로토타입 'EVA 캡'을 공개, 운전대·페달 없는 완전 무인 설계와 서로 마주 보는 좌석 배치를 구현하며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을 구체화
- 저공경제, 국가산업화로 자동차 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
 - 중국 정부는 '26년 저공경제를 국가 신흥 지주 산업으로 공식 격상하고 7월 민용항공법 개정 시행을 예고, eVTOL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자동차 산업과 맞물려 진행
 - CATL은 6인승 eVTOL을 모터쇼에서 전시하며, 배터리 사업에서 출발한 기업이 에너지와 이동수단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 방향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식 가시화

- 자동차·배터리·로보틱스·eVTOL이 하나의 ‘AI 모빌리티 생태계’로 수렴하는 흐름은,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며 AI 플랫폼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구조로 재편 중임을 시사

⇒ 글로벌 자동차 질서 재편, 중국 기술 의존 심화와 공급망 이원화

● 중국 로컬 브랜드 주도로 글로벌 완성차 판도 재편

-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지 브랜드 점유율이 70%에 육박하며 시장 구조가 전면 재편, 전기차 전환 이전 시장을 주도하던 글로벌 브랜드들의 구조적 열위 고착화가 실질적으로 진행 중
-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6.6% 수준으로 하락, AI 주행 기능에서 현지 경쟁사 대비 열위가 거론되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내 차별화 포인트가 약화되는 양상
- 폭스바겐·도요타 등 전통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中 시장 내 AI 기술 내재화 속도에서 현지 업체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업계 내에서 거론되는 추세

● 모멘타의 글로벌 표준 플랫폼화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이동

- 중국 자율주행 기업 모멘타가 현대차·도요타·GM·메르세데스-벤츠를 전략적 파트너이자 투자자로 동시에 확보, 中 자율주행 기술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의존하는 구조가 공식화되는 단계로 진입
- 글로벌 완성차들의 대응이 독자 기술 경쟁이 아닌 현지 기술 탑재 방식으로 수렴하면서,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이 오히려 중국 생태계에 대한 의존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으로 전개
- 중국 자율주행 기술이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업계 평가 속에, 과거 글로벌 브랜드가 기술을 제공하던 수직 관계가 역전되며 기술 주도권의 구조적 이동이 산업계 전반으로 가속

출처: Reuters 외(2026.4.)

<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asia-pacific/chinas-auto-industry-races-embed-ai-line-with-beijing-mandate-2026-04-24/>

<https://baonghean.vn/cong-nghiep-o-to-trung-quoc-buoc-sang-ky-nguyen-ai-plus-va-cuoc-dua-tu-chu-cong-nghe-10334308.html>

<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260425012012>

<https://biz.chosun.com/industry/car/2026/04/25/GRYQEM5IHFFNHCLD4DWWWVSU2J6U/>

<https://www.yna.co.kr/amp/view/AKR20260425039400003>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863592512687916815>

<https://news.10jqka.com.cn/20260427/c676295094.shtml>